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2. 11. 2.(수)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한상혁 위원장
 -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 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상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54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결안건 나> ‘「방송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은 안건논의는 공개로 진행하되, 사업자 의견청취가 예정되어 있어서 사업자 의견청취는 영업비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21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건 (2022-55-196)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2021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욱 편성평가정책과장

- 2021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 ‘2021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를 [별지]와 의결한다’입니다. 「방송법」 제31조에 의거 방송사업자가 2021년도에 실시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2021년도 방송평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기간은 2021년도 1년이며, 평가대상은 총 154개 사업자(371개 방송국)입니다. 평가 영역은 내용·편성·운영 영역입니다. 평가절차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 방송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부터 방송평가 자료를 접수하여 8월까지 방송평가 자료를 분석·검증하였습니다. 2022년 9월 방송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비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10월 17일 방송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자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방송평가결과가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12월에 이루어져왔던 방송평가 결과를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

했습니다. 먼저 지상파 방송사업자입니다. 1) 지상파 TV는 총점 700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EBS만 총점이 하락하고, 나머지 사업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평가점수는 KBS1, MBC, SBS, KBS2 순입니다. KBS1는 재무건전성, 콘텐츠 투자, 자체심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등 항목이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였습니다. MBC의 경우 오보 관련 감점이 감소하고, 재무건전성, 심의규정 준수 등 항목이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였습니다. SBS의 경우 편성규정 및 심의규정 준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등의 항목이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였습니다. KBS2의 경우 심의규정 및 편성규정 준수, 자체심의 등 항목이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EBS의 경우 자체심의, 재난방송, 오보 관련 항목 평가 점수가 하락하여 총점이 하락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 지역민방 TV의 총점은 600점입니다. 전년 대비 강원방송, 울산방송은 총점이 하락하였고, 나머지 방송사는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평가점수는 대전방송, 케이엔엔, 전주방송, 대구방송, 울산방송, 강원방송, 광주방송, 제주방송, 경인방송 순서입니다. 청주방송과 전주방송, 경인방송, 대전방송, 대구방송 등은 재무건전성, 심의규정 준수, 자체심의 등의 항목이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면, 강원방송은 재난방송, 수상실적, 편성규정 준수 등 항목 점수가 하락하여 총점이 하락하였습니다. 울산방송은 재난방송,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등 항목 점수가 하락하여 총점이 하락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3) 지상파 라디오 총점 300점입니다. AM의 경우 KBS2만 상승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모두 전년 대비 총점이 하락하였습니다. KBS1, MBC, SBS, KBS2 순서입니다. FM의 경우 KBS2와 MBC는 전년 대비 총점이 상승하였으며, KBS2, SBS, MBC, KBS1 순서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상파 DMB는 총점이 300점입니다. 지상파 계열은 KBS, SBS, MBC 순서였으며, 비지상파 계열은 한국 DMB, YTN 순서였습니다. <나> 비(非)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편성 PP입니다. 총점은 600점입니다. 전년 대비 총점이 JTBC만 하락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자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TV조선, JTBC, 채널A, MBN 순서였습니다. TV조선은 편성규정 및 심의규정 준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항목 등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였습니다. JTBC의 경우 재난방송, 자체심의 항목에서 점수가 하락하여 총점이 하락하였습니다. 채널A는 심의규정 준수, 재난방송, 재무건전성 등 항목에서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MBC는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경영투명성, 콘텐츠 투자 등 항목에서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도전문 PP는 총점이 500점입니다. 전년 대비 모두 총점이 상승하였으며, YTN, 연합뉴스TV 순이었습니다. YTN의 경우 콘텐츠 투자, 인적투자 항목 등의 개선으로 총점이 상승하였고, 연합뉴스TV는 재난방송, 관계법령 준수, 콘텐츠 투자 항목 등 개선으로 총점이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MSO와 위성방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점은 각각 500점입니다. MSO의 경우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현대HCN은 전년 대비 총점이 상승하였고, LG헬로비전, CMB는 하락하였습니다.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현대HCN, 딜라이브, CMB 순서입니다. 자세한 사별 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재무건전성, 인적투자, 재난방송 등 항목에서 점수가 하락으로 총점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홈쇼핑 P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점은 500점입니다. GS SHOP, 공영쇼핑은 전년 대비 총점이 하락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자는 상승하였습니다. 현대홈쇼핑, GS SHOP, 롯데홈쇼핑, CJ온스타일, 홈앤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 순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홈쇼핑 사업자의 세부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의신청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의 SO인 동대문과 노원의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평가」에 반영하여 점수가 상승하였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의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에서 감점이 적용되었으나 해당 사항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의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서 공정거래 위원회가 예방적으로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이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점사항을 제외한 것입니다. 홈앤쇼핑과 신세계쇼핑·KT알파쇼핑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민원 평가」 관련 추가자료를 확인하고 민원이 해소된 것을 확인하여 점수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평가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2월 중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2021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 분석자료와 사업자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전반적으로 평가점수가 상승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결과를 보면 주로 재무건전성, 콘텐츠 투자 등 지표가 제작년에 비해 많이 상승했습니다. 작년 전체 방송시장의 광고매출, 프로그램 판매매출 등이 증가하였는데 그 결과가 이번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광고매출 실적이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 작년의 좋은 추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더불어 지상파·중편의 경우 심의규정 위반 항목의 점수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심의규정 준수를 위한 방송사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작년에 약 9개월간 심의위원회 출범이 지체된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일부 지역민방TV의 경우 재난방송 실적 항목의 평가점수가 낮아졌습니다. 재난방송 평가방식이 매체 간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작년에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민방의 재난방송 실적이 적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환경 변화도 실적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들은 각자 금번 결과가 나온 이후 의미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총점이 상승, 하락만 평면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가령 종합편성 PP 평가의 경우 JTBC만 하락하고 나머지가 상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JTBC만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막상 총점을 보면 TV조선, JTBC, 채널A, MBN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JTBC가 작년에 평가가 약간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편PP 가운데 제법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편적으로 상승, 하락만 나타내다 보니까 그런 착시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언론보도 과정에서 사무처에서 잘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보이니까, 언론 설명 과정에서 그것이 입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이 평가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제가 방송평가위원장을 맡았던 입장에서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방송평가를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서 필요할 시에는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디다만 사무처에서 열심히 준비해 준 덕분입니다. 그리고 주요 지상파방송사와 종편 방송사 등이 이번 방송평가에서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한다거나 자율규제 제도를 강화해서 방송의 공적책무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방송평가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지난해 개정된 평가규칙에 따라서 사업자 이의신청을 10일 이상 실시하였고, 또 이의신청 기간에 접수된 사업자들의 의견들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 방송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게 타당성과 정당성을 검토하여 최종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평가결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방송평가는 방송의 공적책무를 독려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고 방송사의 신뢰성을 높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2021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건 관련해서 매년 12월이나 결과가 발표되어 위원회에서 시의성과 신뢰성 지적에 대한 반복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김창룡 위원님과 사무처 직원들의 노력으로 평가와 발표시기를 상당히 앞당기게 되었음을 평가드립니다. 재난방송은 KBS1TV 실적 대비 상대평가하는 것으로 KBS 실적이 월등하여 타 방송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디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화, 국지화, 대형화되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재난방송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 방송사업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무처는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보완해서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안형환 부위원장**

- 먼저 방송평가를 위해 애써 주신 김창룡 위원님과 평가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송평가 결과를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차질 없이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앞당겨 준비한 사무처 역시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디어 시장 경쟁 심화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상파, 지역민방, 종편 등 여러 다수 사업자들이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상승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당 방송사에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전년보다 평가가 하락한 방송사들은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여러 부족한 점들을 향후 개선과 발전의 계기로 삼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송사업자 분들 평가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송평가 결과 발표를 한 달 이상 앞당기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고, 그 결과가 11월 2일, 11월

초에 발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생각해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평가결과,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점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재난방송 편성이나 방송관계 법령 준수 항목 등에서 부진했던 방송사업자의 경우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평가가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방송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2022-55-197)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방송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사업자 측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내용 중 사실 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방송시장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입니다. <1> 의결주문, <가> 방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여 「방송법」을 위반한 (주)티비씨 등 16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별지1]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시청자 정보 수집이 수반되는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한 (주)토마토증권통, (주)이데일리씨앤비, (주)서울경제티브이, (주)매일경제티브이에 대해 [별지2]와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2> 제안이유는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한 (주)티비씨 등 20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조치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조사 배경 및 주요 경과입니다. 조사배경은 국정감사 및 언론 등을 통해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 상담 정보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EBS 외에 20개 방송사업자가 보험방송을 편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경과입니다. 2021년 8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2022년 1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피심인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다> 피심인 및 조사 대상 기간입니다. 피심인은 (주)티비씨, (주)KNN, (주)청주방송, (주)지원방송, (주)제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울산방송,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한국경제티브이, (주)팍스넷경제티브이, (주)토마트증권통, (주)이데일리씨앤비, (주)에스비에스미디어넷, (주)서울경제티브이, (주)머니투데이방송, (주)매일경제티브이, (주)내외경제티브이, (주)채널에이 등 20개 방송사업자이며, 순서대로 피심인①~⑳으로 칭하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6년 3월~2021년 11월까지입니다. 4쪽입니다. <4> 기초사실, <가> 피심인 일반 현황입니다. 피심인 일반 현황입니다. 피심인①~⑩은 지역민영방송사업자이고, 피심인⑪~⑲는 경제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업자이며, 피심인⑳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입니다. 5쪽입니다. 보험방송 현황입니다. 피심인①~⑳이 22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개 방송사의 보험방송 송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방송내용은 진행자 외에 보험전문가가

패널로 출연하며, 대부분 보험가입자의 가입현황을 소개한 후 보장범위 및 중복여부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험을 재설계하고 보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험방송의 경우 유명 방송인이 진행자로 또는 패널로 출연하기도 했으며, 출연한 패널 중 보험전문가는 협찬사 소속 또는 협찬사가 추천한 법인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들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5> 행위사실입니다. <가> 협찬계약, 피심인 전체는 법인보험대리점 등과 보험방송 협찬, 편성, 제작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협찬금 또는 제작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피심인들이 체결한 계약서 명칭 및 협찬조건은 다양하나 보험방송을 편성하고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월 단위 또는 회당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공통 사항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잠깐만요. 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은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방송시장조사과장

- 알겠습니다. 9쪽입니다. 피심인·보험방송별 협찬계약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상담DB 등 협찬사의 목적을 인지할 수 있는 협찬계약 내용은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나> 시청자 상담신청 안내입니다. 피심인 전체는 모두 방송 도중 화면상단 왼쪽 및 하단 자막으로 시청자들이 방송 내용과 같은 보험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담전화번호' 등을 노출하고 대부분 진행자 발언을 통해서도 보험상담을 안내·유도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상담신청 전화번호 자막고지 화면과 프로그램 진행자 안내멘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다> 상담전화번호 운영입니다. 방송화면 상·하단 자막으로 안내되던 무료상담 전화는 모두 피심인들이 개설한 전화번호였으며, 시청자 상담 접수는 방송사의 보험방송 작가가 응대를 하거나 피심인의 착신전환으로 콜센터 상담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주)세일코리아넷 및 법인보험대리점 상담원이 응대를 하였습니다. 방송 자막으로 안내된 전화번호 및 상담원 소속기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라> 전화상담 시 시청자 정보 수집, 시청자가 방송에서 안내된 무료상담 전화번호로 통화 시 즉시 상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의 성명, 생년월일, 병력 등 상담자의 인적사항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1차 통화에서 시청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도 '전문가 상담'만으로 설명하여 보험 상품이 안내될 수 있음을 누락하는 등 방송사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마> 시청자 개인정보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 방송에서 안내한 전화번호가 방송사 외부로 착신전환된 경우 상담원 소속에 관계없이 상담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결국에는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되며, 방송사 작가가 상담접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청자 개인정보의 법인보험대리점 제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보험 방송 업무 흐름과 상담원 소속에 따른 시청자 정보 전달 흐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협찬사에 제공된 시청자 개인정보 현황은 16개 피심인 보험방송을 통해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된 개인정보 건수는 110,304건입니다. 세부적인 신청자 정보 제3자 제공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실관계 사항 까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 확인하실 내용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청취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의견청취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인 입장)

(비공개)

(의견진술인 퇴장)

7. 보고사항

가.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가> “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필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보고 가>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입니다. 시청점유율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5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동 고시개정안은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전문가 의견수렴, 미디어 다양성위원회 서면보고를 마쳤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행령과 동일하게 일간신문 구독률 정의와 구독률 산정방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독률 자료 활용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구독률 산정기관의 지정기간을 매년 다르게 정하고 있던 것을 매년 정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조사기법의 한계 또는 기술적 제약 등으로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는 구독률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제6조 제2항·제3항 신설에 따라 제12조의 자료제출 내용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신·구대조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규칙 일몰조문 조항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행정규칙 일몰 조문에 대한 근거규정에 따라 기존 제13조(규제의 재검토)를 제13조(규제의 재검토)와 제14조(재검토기한)로 조항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위원회 보고 이후 행정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부패영향평가 등을 거쳐 12월에 위원회 심의·의결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체부와는 고시 개정 이전이라도 '21년도 구독률 산정기관 및 활용자료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시 개정이 완료된 이후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21년도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되었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국회일정 등을 고려하여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2년도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10분 폐회 】